

고 려 청 자

글 _ 김세용 II 세창도에 연구소
ssceladon@msn.com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도자기는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이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중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흙으로 빚은 토기(Fig. 1)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도자기는 하나의 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한 시대의 삶과 문화를 대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의 꿈과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필자가 학창시절 즐겨 가던 곳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었는데 갈 때마다 제일 눈에 많이 보이는 유물이나 전시품이 도자기였다. 그



Fig. 1. 빗살무늬 토기.

도자기들 중에서도 나를 감동시키고 흥분하게 했던 것이 고려청자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개인 소장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 중에 약 30~40%이상이 도자기라고 한다. 이렇듯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고려청자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이고 훌륭한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도자기 선진국이며 도자기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청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 지기 시작했을까?

청자는 오래전에 중국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3세기경에 처음으로 청자(Fig. 2)가 만들어졌다 고하는데 청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옥(玉)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옥(玉)은 군자를 상징하고 귀인이라고 표현했으며 생전에는 부귀와 명예를 사후에는 내세를 보장해 준다고 믿는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고대 중국의 고분에서는 다량의 옥이 발견되고 있다는데 부모님의 묘에 옥을 부장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옥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생산량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극심한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인 물의가 많았다. 이러한 옥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게 됐고 우연히 가마 안에서 나무가 탄 후에 재가 기물위에 얹혀서 녹는 것이 신기하게도 푸른색을 띠는 것에 착안해서 흙으로 옥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후 오랜 세월동안 그들은 수많은 실험을 하게 됐고 결국 옥과 같은 청자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옥기 대신 청자기를 무덤에 부장하게 됨으로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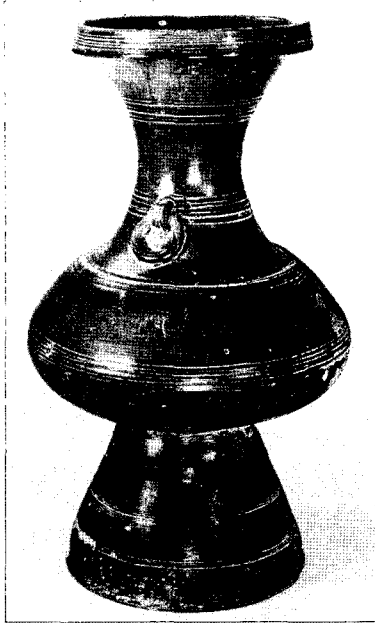


Fig. 2. 초기 중국 청자.

육에 대한 그들의 갈증이 해소 되었으리라 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청자가 우리나라에서도 4세기경의 백제 위례성과 강남의 석촌동 일대의 고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과 6세기 초의 무령왕릉에서도 중국의 청자 항아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대의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서 왕실에서 많이 사용했던 같다. 그러다 보니 중국 청자 수입에 오랜 세월동안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었고 국고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를 국산화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 생각은 고려가 건국되면서 당시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틈타서 많은 중국인들이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중국의 도공들을 회유시켜서 입국하게 하여 청자를 만들고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입국한 중국에서 온 도공들은 우선 개경 일대의 봉천과 용인의 서리 등에서 청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아내고 가마를 만들었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으로 10세기 후반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자 비슷한 것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최초의 고려청자였다고 본다.

그러나 가마가 있던 곳의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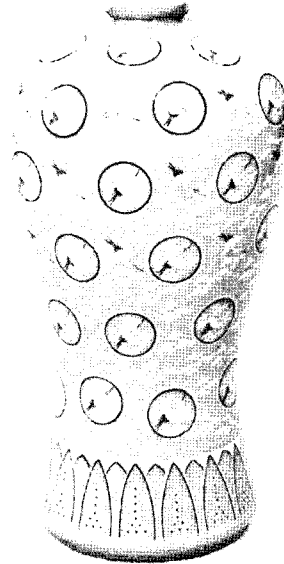


Fig. 3.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패작들의 퇴적층으로 보아 질그릇에서 청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더 좋은 청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아 방방곡곡을 전전하다 전남 강진과 고창 지방에서 좋은 질의 흙을 찾아내게 되고 그 곳에 가마를 문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색의 고려청자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고려청자는 10세기 후반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다. 또한 고려의종 때는 상감기법이 개발되어 흑과 백, 음과 양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했다. 상감기법이란 기물위에 음각으로 어떤 문양을 파내고 그 자리에 백화장토나 흑화장토를 채워 넣는 조각 기법을 일컫는 말이다.

사실 상감기법은 금속공예에서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기법이었으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고려인들이 같이 도자기에 상감기법을 응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가 고려청자하면 연상되는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Fig. 3)은 불교에서 영원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창공속의 구름 너머로 비상하는 학으로 표현해 놓은 대표적인 상감청자라고 볼 수 있다.

고려 국교가 불교였기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화



Fig. 4. 청자 이중투각 도토리문 호.

라고 하는 꽃을 공양함으로 극락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꽃을 꽃을 수 있는 화병을 비롯하여 술을 담을 수 있는 술병과 차를 마실 수 있는 다구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기가 많이 만들어 졌었다.

또한 상감청자는 고려시대의 민족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청자의 기물 위에는 오랜 세월동안 살아온 고려인의 삶과 꿈을 그대로 그려 넣고 있어 우주와 자연이 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청자는 우리의 후손들에 의해 줄기 차게 계승 발전 되어져야한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수 없이 많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당했고 그로 인해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고려청자의 맥이 끊어질 뻔했다. 다행이 끈질긴 민족성에 힘입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배 도공들의 집념과 희생정신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계승되어져 오늘날의 고려청자를 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세기 들어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의 그것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청자

로 거듭나고 있다. 청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다는 마음 감출수가 없다.

지금 현대인들은 금전만능의 물질문명과 과학문명의 이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풍요롭고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숙이 내면의 정신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대단히 복잡한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각종 공해의 위협과 정서적으로 메마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메마른 정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귀의처로서 고려청자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고려청자를 재현해서 이 시대를 담아 낼 수 있는 청자(Fig. 4)로 만들어 보기 위해 40여년을 한결같이 청자와 함께 했다. 이제 필자로 인해 탄생된 그 청자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치려한다.

참고문헌

1.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윤용이)
2. 세계 도자사 (황종례, 유성웅)

●● 김 세 용



- 세창도에연구소 대표
- 저서 「전통 도자기를 재현한 도자기 공예」
- 청강문화 산업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 대한민국 명장 선정
- 개인전 「흙에서 빛으로」